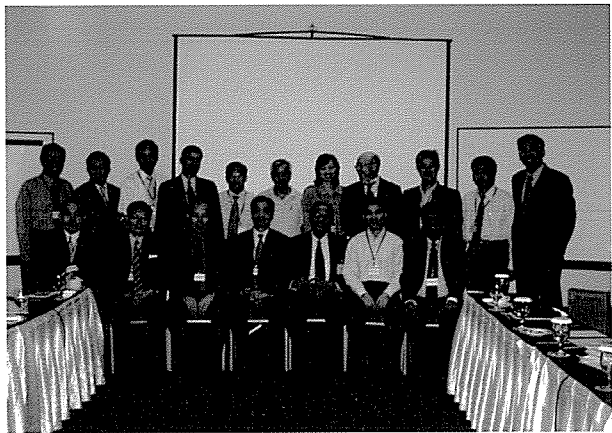


# AMEPS 2005 정기총회 결과

2005년도 아시아EPS산업회의(AMEPS, Asian Manufacturers of Expanded Polystyrene) 특별위원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임페리얼 아리아두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는 AMEPS 이사 12명(한국 최주섭 부회장,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단 호주 및 준회원국 베트남은 불참)과 인도네시아EPS생산자기구(INAEPISA) 회원업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생산 및 재활용기술세미나에는 EPS 성형기계 생산업체 6개소(KURTZ, DAISEN, HIRSH, STYROTEX, FANYUAN, ERLNBACH 등), 재활용업체 1개소(TIMBRON Int.)가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환경부 환경오염관리부장 등 내빈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AM** EPS는 1995년 4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이 EPS의 회수재활용 촉진과 제품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기술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창립한 이후 2005년 말 현재 14개국(정회원 13개국, 준회원국 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AMEPS는 매년 1회 이사회와 총회를 회원국가가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고 회원국 확대 및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개최 협의하고 있다. 한국 대표로 협회 최주섭 부회장이 이사 및 특별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생산 및 재활용기술세미나에는 회원국가별 국가보고서 발표와 미주지역의 AFPR과 유럽지역의 EUMEPS Packaging의 임원이 동참하여 북미와 유럽의 재활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AMEPS는 website(www.ameps.net)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재활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AFPR(미국), EUMEPS(유럽), ASAPEX(남미)와 함께 국제EPS동맹(INEPSA)을 구성하여 매년 1회 회의 개최 및 website(www.epsrecycling.org)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도 AMEPS의 주요 예정 행사는 특별위원회 개최(뉴질랜드 오클랜드, 5월), 이사회, 2006 총회, 재활용기술세미나 및 INEPSA 회의 개최(중국 장인, 11월) 등 이다. 한국은 1997년, 2001년 서울에서 총회와 기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아 EPS 생산 및 재활용현황(2004년 기준)을 보면 생산량 1,979천톤(가전 46%, 상자 13%, 판물 41%)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고, 다량 생산국가는 중국 1,250천톤, 한국 221천톤, 일본 194천톤, 홍콩 70천톤 순이며 나머지 국가는 50천톤 - 5천톤 내외이다. 최근 선발국인 일본, 한국, 홍콩 등은 가전품 등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연간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활용에 있어서는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재활용율이 60% 이상이어서 회원국 평균 재활용율이 58%에 이르고 있다.